

3월7일(월)/고후 5:1~7

**제목: 죽는 것은 이사가는 것입니다.**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죽음을 가리킨다. 죽는 날은 기쁨의 날이다. 왜냐하면 죽으면 육신을 벗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집으로 가기 때문이다(1절). 이 집은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집이다(1절). 영혼이 하나님의 집에 안착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가슴 벅찬 일인가?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집을 동경해야 한다(2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여러 가지 인생의 짐에 눌려 신음하게 된다(4절). 아무리 행복한 생을 사는 사람이라도 기본적인 분량의 고난이 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저야 할 인생의 무게들이 있다. 대부분 사람은 그것을 짊어지고서라도 오래 살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 짐을 벗고 하나님을 대면하러 가는 그 길은 기쁘고 감격스러운 길이다. 그렇다고 일부러 죽을 필요는 없다. 일부러 건강을 해치고, 병원을 등질 필요는 없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산다는 것이다(6절).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과 가깝기 어렵다. 그러나 죽으면 달라진다. 죽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죽으면 하나님과 친해진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죽음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나라로 이사 가는 것이다.

3월8일(화)/고후 5:8~10

**제목: 장수보다 상급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기대와 동경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가볍게 살아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이 지은 집으로 갈 운명에 놓인 사람이라도 이 세상을 가소롭게 여기면 안된다. 크리스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목표는 분명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9절).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심판대 앞에서 머지않아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10절). 그 나라에서 안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에서 받을 상급도 신경쓰야 한다. 크리스찬은 장수보다 상급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크리스찬은 오래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크리스찬은 지상에서 살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은 하늘에 있는 사람이다. 바람처럼 지나가는 이 생에서 낙(樂)보다 영원한 곳에서 누릴 영광을 생각하며 지내야 한다. 이 생에서의 기쁨과 낙에 치중한 사람은 저 세상에서 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영광의 면류관을 얻느냐 잃느냐의 운명을 결정한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이것을 생각할 때 인생이란 매우 무섭고 엄중한 것이 된다.

3월9일(수)/고후 5:11~19

**제목: 새로운 피조물**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진실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므로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자기가 그렇게 알려지기를 원했다(11절).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여러번 미쳤다는 말을 들었다(행26:24). 이에 대해 그는 자기가 미쳤다면 하나님을 위해 미쳤고 자기가 온전하다면 고린도 교인을 위해 온전한 것이라며 자기의 진정성을 계속 강조하였다(13절). 그는 크리스찬의 삶의 원동력에 대해서 말을 하였다. 예수님은 만민을 위해 죽으셨다. 그러므로 모든 크리스찬은 그 분 안에 있다. 따라서 크리스찬은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의 옛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으므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새롭게 창조된 인간성으로 살아야 한다(15~17절).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인간과 화해하셨고, 이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화해의 말씀을 세상에 전할 임무를 주셨다(18~19절). 오늘 우리는 이처럼 다른 인격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사물을 보고 사람을 대하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화해의 말씀에 따라 생활해야 할 표준을 부여 받은 사람이다. 오늘날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여기에 부합되고 있는가?

3월10일(목)/고후 5:20~21

**제목: 자식을 버리신 하나님**

바울은 대사관의 자격으로 간곡히 부탁하였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0절) 바울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관으로 여겼다. 한 나라의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믿었다. 그는 사람들을 예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는 책임자라는 의식을 가졌다. 그는 예수님 나라의 이념과 통치 구조를 세상에 알리는 메신저라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한줄 간략히 기록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죄를 모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자로 여기시고 우리를 무죄 선언을 받게 하셨다” (21절). 이보다 더 정확하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얼마만큼 세상을 사랑하셨는가? 죄없는 자기 아들에게는 사형죄를 뒤집어 씌우고, 사형 선고 받은 세상 잡배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실 만큼....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있는 무죄를 인간에게 전가시키시고 인간에게 있는 유죄를 자기 아들에게 전가시키셨다. 인간에게 있는 유죄가 그에게 감과 동시에 그에게 있던 ‘의’는 인간에게로 옮겨 왔다.

3월11일(금)/고후 6:1~10

### 제목: 직분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

바울은 하나님의 충실한 일꾼이라는 자기 직분이 타인들에 의해 비방 받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였다(3절). 물론 바울은 많은 비방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인격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편견과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자기의 직분이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사항들을 열거하였다. 그는 철저히 사람에게 거치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처신하였다(3절). 그는 환난과 궁핍과 역경과 매질과 옥살이와 폭동과 심한 노동과 불면과 굶주림을 견디었다(4~5절). 그는 순결과 끈기와 착한 마음과 꾸밈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고, 수치와 비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았고 슬픔을 당해도 기뻐했고 비록 가난했지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했다(6~10절). 그가 이렇게 산 이유는 오직 하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직분을 위해서였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직분이 주어졌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경거망동한다면 그 욕은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고스란히 돌아간다. 만약에 우리가 이 직분을 헌신짝처럼 여긴다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비방하는 셈이 된다.



##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